# 유보통합 과제 공동 모색

### 전북·제주 등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정책 워크숍
### 올해 운영계획 공유·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등 논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였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 완판본문화원에서 '2025년 유보통합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앞서 전북·제주·세종·강원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 상황 공유 및 현장 중심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 다양한 정책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해왔다.

특히 올해는 실무협의회뿐만 아니라 정책 워크숍으로까지 확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북, 세종, 강원, 제주교육청 유보통합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해 △2025년 유보통합 운영 계획 공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관리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전북교육청은 지역에 적합한 관리일원화를 위해 보육사무의 교육청 이관에 따른 조직개편 방안, 교육·보육 재정 지원 모델, 업무와 인력 구성안 도출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설명했다.

또한 세종교육청은 이관 대상 쟁점 사항을, 제주교육청은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협력 방안을, 강원교육청은 유보통합 관련 정책 연구 결과를 각각 공유했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동 과제를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우수 사업 공동 발굴과 특례법 제·개정에도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8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캠페인'이 진행된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전주부설초 학생과 교직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확산 다짐'

### 전북교육청, 전주부설초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각자의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약속이다.

전주부설초 학생자치회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교육공동체 간 협력적 소통을 통해 책임규약을 공유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주부설초 학생과 교직원,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완산경찰서 등 교육주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와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해 학교폭력예방과 생활지도 전반에 걸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를 선정·시상함으로써 실천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며,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중심의 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 도내 초졸 73·중졸 175·고졸 590명 검정고시 합격

### 전북교육청, 2025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성적조회는 2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누리집(www.jbe.go.kr)에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치러진 검정고시에는 초졸 86명, 중졸 244명, 고졸 944명 등 총 1,274명이 지원해 초졸 73명, 중졸 175명, 고졸 590명 등 총 838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73세, 중졸 76세, 고졸 80세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중졸 13세, 고졸 12세로 집계됐다.

우편 수령 신청자는 2~3일 후 합격증서를 받아볼 수 있고, 방문 수령 신청자는 오는 22일까지 응시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고문(교육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성적조회는 오는 27일까지 본인에 한해 확인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 신규공무원 공직사회 적응 토대 마련

### 전북교육청, 저연차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인 행정실에서 1년6개월 이상 근무시 순환전보시키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온힘을 쓰고 있다.

이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저연차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 인사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신규공무원 정원 3명 이상 기관 우선 보직 △신규공무원 주기적 인사상담 제도 마련 △2인 행정실 1년 6개월 이상 근무 저연차 공무원 순환전보 자격 부여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인사제도 개선안은 오는 6월 최종 확정, 7~8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시행된다.

조철호 총무과장은 "인사제도 개선으로 신규공무원과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사회 적응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한 저연차 공무원의 보직 관리 유연성을 강화해 조직 전반의 활력과 인사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전북교육연수원
### 청렴정책 추딘단 회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8일 본관 회의실에서 청렴정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관장의 청렴철학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실천하는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을 목표로 주요 청렴정책과 연간 추진과제, 부패취약 분야 개선방안, 청렴 서포터즈 운영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민완성 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신뢰받는 조직을 위한 핵심 가치"라며 "모든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청렴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기관 1실천과제' 운영방안,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청렴 다짐 카드' 캠페인,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간담회 추진, 청렴 메시지 전파 계획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이 제시됐다.

/장은성 기자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미국 타코마교육청과 '제2기 글로벌 브릿지 캠프' 운영을 위한 합의각서(MOA) 서명식이 열렸다.

전북교육청 - 미국 타코마교육청

# 글로벌 브릿지 캠프 운영 MOA

### 패트릭 어윈 타코마교육청 국장 등 전북 방문
### 전북외고 등 찾아 국제교류수업 운영 현황 살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5층 회의실에서 미국 타코마교육청과 '제2기 글로벌 브릿지 캠프' 운영을 위한 합의각서(MOA)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패트릭 어윈(Patrick Erwin) 타코마교육청 국제교육부 국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5~9일 전북을 방문해 국제교육 교류협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타코마교육청의 이번 전북 방문은 전북교육청과 워싱턴주교육청이 지난 2023년 12월 체결한 국제교육 교류협약에 따른 교류 활동으로 이뤄졌다.

방문단은 전북외국어고등학교와 전주근영중학교 등 2023년부터 호주, 일본, 태국,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와의 온라인 공동수업과 상호 방문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수업 운영 학교를 찾아 수업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더불어, 군산시청을 방문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 지역의 학생 해외연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미국 타코마 지역 학교들과의 온라인 공동수업, 교직원 교류, 한국어교육 기반 교류 프로젝트 등 다각적인 교육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MOA 서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 타코마 지역 학교와의 국제교류수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계약정원제 활용 주관기관 선정

### 전북대, 기업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 교육… 졸업 후 취업도 보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25년도 계약정원제 활용 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8일 전북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기업의 채용 조건을 반영한 계약정원제를 활용해 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석사급 인재를 양성·공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2027년 6월까지 2년간 △기업 맞춤형 전략기술 분야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첨단방위산업(첨단무기, 우주항공, 차세대통신, 무기체계, 드론 등), 반도체 부품생산, 기후테크 등 다양한 우수 기업에서 참여의사를 표했다.

특히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수행을 위해 등록금(전액)과 학업장려금 지원, 해외 (단기)연수는 물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현장 문제 해결에도 나설 방침이다.

총 지원 규모는 약 30억원으로, 석사과정 20명 이상 양성을 목표로 교육지원비 20억원과 프로젝트 지원비 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대는 2025학년도 9월 석사과정 입학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학사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2025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소속 전공자를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전략기술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약정기업 모집도 병행한다. 선발된 기업은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기술 문제 해결을 지원(지원금 4,000만원 수준) 받을 수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이번 계약정원제 활용 사업을 통해 지역 및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필요한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전주평화의전당 유항검홀에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를 지원하는 기구로, 14개 교육지역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설치돼 있다.

특히 학교(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외부 환경에 의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위해 맞춤형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연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성)범죄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승규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장이 강사로 나서 '사이버 (성)범죄 사례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이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인권 관련 교육 및 연수를 더욱 확대해 장애 학생의 인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지역 ODA 상생 플랫폼 구축 기여"

### 전북국제개발협력 백숙희 신임 센터장

전북대학교(양오봉 총장)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산하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의 신임 센터장으로 백숙희 전 KOICA 지역사업이사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백 신임 센터장은 1991년 KOICA 설립 당시 창립 멤버로 참여해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분야를 선도해온 인물이다.

KOICA 최초의 여성 이사로, 캄보디아와 미얀마 사무소장, 이집트 사무소 부소장, 고객만족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정책 추진력을 두루 갖춘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KOICA 설립 이전인 1987년부터는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과학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서 ODA 관련 업무를 맡은 바 있다.

백 신임 센터장은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의 핵심 운영목표인 '전북지역 ODA사업 참여기반 확대를 위한 ODA 상생 플랫폼 구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도내 반도체, 2차 전지, 보건의료, 농생명 등 강점을 지닌 대학, 기관, 기업들이 ODA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ODA 거점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대학,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들이 ODA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KOICA,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간의 업무협조약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와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운영체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병훈 총장과 이경진 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년들의 자원봉사 및 공익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기반 구축 ·대학생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봉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